

1. 새하늘우리교회는 "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건강한 공동체"를 꿈꿉니다.
-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회심한 공동체
-정서적으로 건강한 공동체
-진솔한 관계의 공동체
2. 추수감사예배: 하나님께 감사합니다. 고백과 기쁨이 있는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.
3. 11월 보드회의 주요 토론 사항
*2020년 1박 2일 수련회를 개최하기로 함. *수요예배를 당분간 모이지 않기로 함.
*새가족환영회: 12월 22일(주일) 오후5시 30분, 엄태석/한희영 가정
*렌트비 조정을 위한 협의 진행 중.
4. 11월 설교 일정
*3일: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(눅19:1-18)
*10일: 사마리아인이 되라(눅10:25-37)
*19일: 돈을 모독하는 삶(마19:21-25)
*24일: 추수감사예배
5. 12월 예배섬김
*성찬: 엄태석, 신창순, 장정선. *기도: 주수일, 이근청, 박정자, 엄태석, 김세훈.
*성경봉독: 정제니, 한희영, 김기수, 이정환, 이규근.
*헌금: 손미숙, 전보영, 임현숙, 노희재, 최순혜
6. 교우동정: 고순옥(출타)
7. 목회자동정: 광정빈목사(가족방문)

다음 주일 (11월 24일) 예배위원

기 도 : 주수일 성경봉독 : 정제니 친교당번 : 예녹(24일), 1일(없음)
헌 금 : 손미숙 12월 안내 : 신창순

예배와 모임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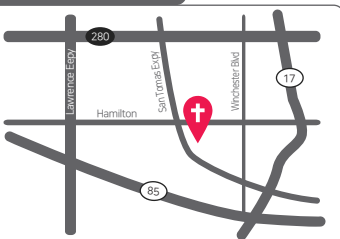
주일예배 주일 1PM 본당		유년주일학교 주일 1PM 유년부실	Youth Group 주일 1PM Youth Room
수요예배	수요일 7:30PM 찬양기도실	목장모임	각 목장
토요예배	토요일 6AM 본당	새하늘한국학교	금요일 4:30PM

섬기는 이들

Youth
Bobby Yom 전도사
408.835.7395 byom01@gmail.com

담임목사
광정빈 목사
408.656.2624 jbkwak06@yahoo.com

오시는길 안내



하 나 님 나 라 를 살 아 가 는 건 강 한 공 동 체

 **새하늘우리교회**
New Heaven Community Church

추수감사주일예배

1 P M 인 도 : 광 정 빈 목 사

*표시는 일어서서 드립니다.

교회소식 Announcement		다같이
예배로의 부름 Call to Worship *		다같이
영광송 Doxology *	내 모습/날마다 숨쉬는/난 예수가 좋다오	다같이
대표기도 Prayer		엄태석
찬 양 Hymn	공중 나는 새를 보라(588장)	다같이
성경봉독 Scripture	시75:1	김소영
성가대 Anthem	"감사찬송"	우리성가대
말 씬 Message	"감사하고 감사합니다"	곽정빈목사
결단의 기도 Prayer		다같이
헌 금 Offering *	오 신실하신 주	임혜영
축 도 Benediction *		곽정빈목사

헌금은 들어오시면서 미리 헌금함에 넣어주십시오.

수요예배	7:30PM	토요새벽예배	6:00AM
찬 양:	예수님은 누구신가(96) 지금까지 지내온(301)	찬 양:	험한 시험 물속에서(400) 너 근심 걱정 말아라(382)
기 도:	미정	기 도:	박정자
본 문:	미정	본 문:	미정(이민성목사)

1. 서론(동백꽃 필무렵)

2. 감사의 범위: 범사에 감사하라.

시75:1, 감사하고 감사합니다.

살전5:18, 범사에 감사하라.

시136:11, "이스라엘을 그들(애굽)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"

-좋은 일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과정까지 포함한 모든 것에 감사하라.

-"내일 행복하면 돼죠?"

3. 평범함에 감사하라.

-감사는 '받은 것' 때문이 아니라 '하나님'때문에 나온다.

4. 감사의 대상: 하나님께 감사하라.

-눅17:11-19:

-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'감사할 일'이 없어서가 아니라 '감사할 마음'이 없어서입니다.

5. 감사의 자세: 댓가를 바라고 감사하지 말라.

- 댓가를 바라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뇌물이다.

- 주면, 드리겠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거래이다.

-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린 적은 없다.

- 감사만 드리자.

6. 오늘의 은혜와 결단

이달의 추천도서



오늘이라는 예배 | 티시 해리슨 워런

잠에서 깨고, 이를 닦고, 열쇠를 잃어버리고, 남은 음식을 먹고, 배우자와 다투고, 이메일을 확인하고, 교통 체증을 견디고... 우리의 사소한 일상이 거룩한 예전이 될 수 있을까?

지난 주 헌금 (11월 17일)

십일조: \$688

감 사: \$40

주 일: \$295

선 교: \$20

특별: \$0

합 계: \$1,043